

한국학이 나아갈 큰 길에서 만난 언어학자

- 연재훈 런던대학교 소아스(SOAS) 한국학 교수



연재훈 교수(오른쪽)와 이동은 교수(왼쪽)

질문자 이동은(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때 2018. 7. 7.(토) 곳 경희대학교(서울) 부근 커피숍

1980년대 이후 한국학은 세계 유수의 고등 교육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이해하고 학문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역학의 주요 분야로 떠오르면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연재훈 선생은 이러한 흐름의 주역으로서 국외 한국학을 대표하는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 동양 아프리카 대학(SOAS, School of Oriental & African Studies. 이하 소아스)이 오늘의 한국학 요람으로 자리 잡게 한 주인공이다.

선생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학부에 언어학이 개설되어 있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공부하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당시에는 석사 졸업 논문이 박사 과정 진학이나 연구자의 진로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선생의 석사 논문 “한국어 ‘동사성 명사 합성어’(verbal noun compound)의 조어법과 의미 연구”도 조어법 연구에서 꾸준히

인용되는 업적으로 꼽힌다. 박사 과정 중에는 “국어 중립 동사 구문 연구”를 발표하였고, 선생의 박사 과정 이후의 연구물들은 새로운 세대의 한국어 문법학의 성장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선생은 박사 과정 수료 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긴 세월 동안 런던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학의 방법론을 선도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1994년 런던대학교의 박사 학위 논문인 “Grammatical relation changing constructions in Korean: A functional-typological study(한국어 문법 관계 교체 구문 연구: 기능 유형론적 연구)”는 이후 선생의 한국어 문법학 연구에 기틀이 되었다. 향후 선생의 연구들은 유럽 지역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학의 연구사에 큰 방향성을 제시해 왔고, 선생은 유럽한국학회(AKSE,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 in Europe)와 유럽한국어교육학회(EAKLE, European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해 온바 이들 학회가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한국학 학술 단체로 발돋움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필자는 1985년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하면서 당시 실용 영어 강좌의 조교였던 선생을 만나 30년 넘게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스승으로서 선생을 알고 지내고 있다. 무척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선생의 눈에서 빛나는 호기심을 읽는 것과 학문적 논쟁을 할 때의 예리함과 치밀함을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인터뷰를 통해 선생의 학문 세계와 삶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고 본받고자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 보았다.

이동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술 대회 참석차 한국에 귀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근황을 좀 여쭙겠습니다.

연재훈 네, 반갑습니다. 《새국어생활》은 우리말과 우리글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는 독자들에게 한결같은 즐거움을 주는 계간지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청해 주신 이동은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바쁘게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봄부터 학회 관련 초청과 발표들로 다소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7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열리고 있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의 제28차 국제학술 대회에서 제가 런던대학교에서 연구와 교육을 하면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동안 영어권 한국어 교재 개발에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기조 발표를 마쳤습니다. 2주 후에는 중국 길림성 연길의 연변대학교에서 열리는 중국한국(조선)어연구교육학회에서 ‘대학 전공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고려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Korean Studies)와 국제한국언어학회(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내년에 각각 체코 프라하의 카를대학교 호주 멜버른의 모내시대학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학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은 1989년 런던대학교 소아스의 한국학과에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런던대학교에 부임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울러 학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연재훈 네, 이동은 선생님은 저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인터뷰하는 것이니 조금 상세하고도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우는, 특별한 계획이나 준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주에 ‘역마살’이 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되었으니 운명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1989년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당시 어학연구소 교육훈련부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런던대학교 소아스 한국학과의 초대 교수 스킨랜드(Skillend) 교수님이 정년

퇴임을 하시면서 조교수 1명과 전임 강사 1명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한국학술진흥재단(현재의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당시 소아스 한국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장이셨던 박남식 교수님께서 이 공고를 전달받으시고 저를 추천하셨고, 저는 얼떨결에 지원하여 1989년 6월에 인터뷰를 통과하고 1989년 10월부터 3년 계약으로 전임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시 저는 한국어 문법을 전공하면서 언어학과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 전혀 외국에 나갈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위해 도서관에서 토플이나 미국의 대학원 입학 자격시험(GRE, Graduate Record Examination)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서관에서 그런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었던 제가 영국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영어 유학 시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제가 그래도 영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맡은 조교의 임무 중 하나가 실용 영어 강의를 담당하던 영국 강사들의 보조,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박사 논문 제출 전이라서 이 우연한 기회로 간 김에 5년 정도 박사 학위까지 마치고 귀국하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했는데 29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웃음).

이동은 선생님께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유럽에서 한국학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선생님께서 재직하고 계신 영국 런던대학교의 소아스는 유럽 제1의 한국학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소아스가 이러한 위치에 서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연재훈 소아스 한국학과는 1950년대 중반부터 한국학이 일본학, 중국학과 함께 부전공으로 개설되었었는데, 제가 부임한 1989년 10월부터 한국학이 단독 전공으로 개설되며 소아스는 물론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분수령이 되었던 셈입니다. 한국 문학 전공의 스킨랜드 교수님과 스위스 출신 한국 역사 전공의 마르티나 도이힐러(Martina Deuchler) 교수님, 그리고 한국 미술사 전공의 박영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다음 제가 부임했구요. 이듬해에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 한국학과에 재직 중인 로스 킹 교수, 한국 음악 전공인 키스 하워드 교수가 부임했습니다. 로스 킹 교수는 저와 같이 면접을 보았으나 1990년 박사 학위 취득 후에 소아스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에는 한국학 전공 신입생이 한 명이었고, 각 학년의 부전공 학생 한두 명이었는데 이에 대해 교수는 두세 명이 배정된 셈이니 학생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적의 교육 환경이었죠. 당시만 해도 영국이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한국학과 같은 군소 학문 분야도 정책적으로 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학 전공 1학년 신입생이 40명 정도로 팔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아스를 포함한 모든 영국 대학들이 경제 원리에 지배되므로 학생이 없으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규모로는 한국어가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다음으로 4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어의 위상이 확연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아스가 유럽 제일의 한국학 연구 기관이 된 배경에는 소아스 대학의 전통과 교수진들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지만, 한국 정부 기관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큼니다. 소아스의 시작은 1917년이었는데, 공공연한 비밀이지만(웃음), 소아스는 국가적 필요성 즉, 식민지 경영이나 스파이 육성을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언어들을 교육하는

기관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그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꾸준한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지원을 토대로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대중가요(K-pop), 한국 드라마, 한류 등 이른바 역동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나 한국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전공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증가한 것입니다.

이동은 선생님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선구적으로 한국어 교재 개발에 힘써 오셨는데요, 1997년 《Teach yourself Korean》(자습 한국어)에서 2016년에 출간된 《Speed up your Korean》(한국어 실력 향상)에 이르기까지 교재의 연구 개발 성과를 압축할 수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일지요?

연재훈 물론, 처음에는 불과 한두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으므로 교재도 없어, 복사물이나 프레드 루코프 선생의 《An Introductory Course in Korean》(한국어 입문 강좌)을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로스 킹 교수가 부임하면서 《Elementary Korean》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와 로스 킹 교수는 로마자로 된 새뮤얼 마틴 선생의 《Beginning Korean》(한국어 시작)을 저본으로 로마자를 한국어로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복사본을 사용하다가 수정, 보완을 거쳐 1995년부터 터틀(TUTTLE)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정식 출판 전의 시험판을 학생들과 함께 사용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2000년에 첫 발행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Continuing Korean》(중급 한국어), 《Advanced Korean》(고급 한국어) 등이 출간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영어권 한국어 교재 개발에 많이 관여한 편인데요.

우선 《Teach Yourself》(자습) 시리즈로 유명한 영국 호더 앤드 스토턴(Hodder and Stoughton) 출판사에서 《Teach Yourself Korean》 시리즈로 완전 초보자를 위한 《Get Started in Korean》(한국어 첫걸음)과 초급에서 중급 학습자를 위한 《Complete Korean》(한국어 완성)을 출판했지요. 미국 대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Integrated Korean》(통합 한국어) 시리즈를 출판한 하와이 주립대학 출판부에서 《Integrated Korean: Advanced 1, 2》를 제작하는 데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라우틀리지(Routledge) 출판사에서 펴낸 한국어 중급 읽기 교재인 《The Routledge Intermediate Korean Reader》, 한국어 교육 문법 총서인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한국어: 종합 문법),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6년에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 교정을 위한 《Speed Up Your Korean: Strategies to avoid common errors》(한국어 실력 향상: 흔한 실수 피하기 전략)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들은 《Get Started in Korean》을 제외하면 모두 다 다른 분들과 공저한 책들인데 훌륭한 공저자들을 만나서 좋은 책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어 교실에서는 의사소통 교수법이나 과제 중심 교수법 등이 유행하지만, 저는 전통적인 구조 중심의 한국어 문법학자로서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명시적인 문법 교육이 금기시되는 추세라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학 전공과목으로서 한국어 교실에서는 체계적인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문적인 목적을 위한 교육에서는 문법이나 구조에 대한 지식 바탕이 없이는 정확성이나 유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수준 이상에 도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근래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보다도 더 한국어 글말을 잘 구사하는 박노자 교수님이나 맨부커상 수상자인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 씨 등의 한국어 능력은 교수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학습자가 전통적인 학습법으로 구체적인 언어 지식을 열심히 학습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동은 방금 언급하신 데버라 스미스 씨는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문판인 《The Vegetarian》의 번역자로 2016년 맨부커상을 수상했는데요. 데버라 스미스 씨는 소아스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일인데요. 외국 학생 말고도 일반 외국인들에게 인식되는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연재훈 데버라는 케임브리지대학의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소아스에서 한국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한국어 수업을 들은 것은 일주일에 두 시간 중급 한국어 수업을 들은 것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스스로 한국어 문법과 구조 등을 공부한 것입니다. 데버라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성문 종합 영어》를 독파하면서 문법과 구조를 분석하는 식으로 영어를 공부했던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입말 자체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한국어의 구조에 대해 스스로 진지하게 공부해서 한국어의 구조를 어느 정도 체득하고 그 토대 위에서 번역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식주의자》의 번역판이 상을 받은 것은 데버라가 한국어와 영어 간의 직역을 잘하거나, 한국어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원래 모어인 영어를 잘 구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데버라의 번역을 놓고 여러 비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번역학이라는 측면에서 오역과 번역의 정확성을 비판하거나 비평할 수는

있지만,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서는 번역된 작품이 얼마나 문학적인 가치를 잘 구현하여 잘 읽히게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데버라가 문법적인 실수를 범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오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데버라가 논란이 제기된 부분들을 잘못 이해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데버라의 한국어 실력이 《채식주의자》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가 데버라의 영어 번역의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반복하지만, 번역된 언어인 영어가 얼마나 문학적으로 영어 화자들에게 잘 읽히는가가 중요하고, 실제로 많이 읽히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도 3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한국 전쟁’, ‘분단’, ‘북한’ 정도의 인식밖에 갖고 있지 않던 영국 사람들도 지금은 한국인과 한국 문화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년 동안 한국에 가서 언어 교육을 받고 오는 영국 학생들의 95% 이상은 한국 문화의 역동성과 한국인의 친절, 한국 음식의 맛 등에 매료되어 한국 광팬이 되어 돌아옵니다(웃음). 물론 그중에 극소수는 한국의 군대 문화, 위계질서, 남녀·동성애·인종 차별, 개인적인 나쁜 경험 등으로 실망하고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양 사람들에게 한국, 일본, 중국은 문화적으로 비슷하게 인식될 것 같기도 한데, 영국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답니다. 그중에서 특히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한국인의 ‘역동성’입니다.

이동은 선생님께서는 영국에서 최초로 런던대학교 내에 세종학당이 개설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중심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간 세종학당을 운영하시면서 경험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세종학당의 오늘, 내일과 관련한 해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재훈 세종학당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 저희가 원해서가 아니라 런던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교육하게 되면서 소아스 언어교육원에서 수업료를 받으며 운영되던 한국어 과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문화원의 추천을 통해 세종학당재단의 지원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종학당이 법정 공공기관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 가면서 본부인 세종학당재단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요건들이었고, 소아스의 세종학당은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세종학당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몇 년을 더 유지했고, 내년부터는 세종학당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다시 원래대로 소아스 언어교육원 한국어 과정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종학당의 이름을 걸고 교육했을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세종학당 교재 사용의 강요나 표준 운영 지침의 일률적 적용, 회계 등의 의무적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수업료의 결산 문제만 해도 소아스 언어교육원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가 포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어 과정만의 예산과 결산을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학당의 일 년 지원비로는 영국에서 한 명의 운영 요원 월급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요구하는 행정적인 일 처리가 너무 많아요.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부분이 쓸데없는 일들이고요. 비록 저희 대학과는 맞지 않았지만, 세종학당은 자국어를

보급하기 위한 훌륭한 투자임에는 분명합니다. 많지 않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측면에서는 최고의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대학과는 조건 면에서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보급 사업은 앞으로도 한층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한 사업임을 믿습니다. 다만, 세종학당이든 한국문화원이든 해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데서 지나친 애국주의, 혹은 국수주의나 자랑 일색의 홍보를 지양하고, 중립적이면서도 교육 수요자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현지 문화와 융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가끔 외국 대학의 한국학과가 한국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의 한국학자들도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학에 대한 지원 기회도 당연히 여러 기관, 여러 학자에게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자들의 입장이 특정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연구비 지원이 중단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동은 한국학과 졸업 이후의 진로가 불분명하다는 걱정스러운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개선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재훈 영국이나 서유럽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하는 분야와 졸업 후에 취업하는 직장 사이에 상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즉, 한국학이나 중국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한국 대사관이나 중국 대사관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판 직원은 그다지 높은 지식수준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고 보수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나 중국어 등 비교적 어려운 동양의

언어를 전공한 대학 졸업생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에서 여러 직종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그에 맞는 훈련을 거친 후 직장인이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 학문적인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 제가 생각하는 한국학 전공의 방향은 차세대 현지인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에 주력해야 하고, 이들이 전문인이 되어 안정적으로 한국학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대학의 영어영문학과를 비롯한 외국어 학과의 교수진 대부분이 한국인인 것처럼 해외 대학의 한국학 교수진도 현지인이어야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현지인 박사 과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현지인 박사들이 정년 과정의 교수로 취직할 수 있도록 학문의 후속 세대를 육성하는 지원 사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관계자들에게 세계 여러 대학에 고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지원과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동은 선생님께서는 한국어 문법학 분야에서 동시대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학자이신데요. 어떤 철학이 있으신지요. 예컨대 문법 현상을 발견하고, 기술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연구, 교육 방법에서 지향점을 찾는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연재훈 쉽지 않은 질문을 하시네요. 동시대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학자라는 표현은 격에 맞지 않는 과찬입니다. 1980년 인문대학에 입학해서 언어학 개론을 배우면서 “인간의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라는

그 한 줄에 매료되어 언어학을 선택하고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언어학을 하다 보니 인간의 정신 구조와는 별로 상관 없는 것들을 하게 된 것 같아 기성세대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서는 특히 근래에는 연구에 흥미를 좀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웃음). 저는 석사 과정에서는 조어법에 관심을 가지고 1986년에 “한국어 동사성 명사 합성어(verbal noun compound)의 조어법과 의미”라는 논문을 썼고, 박사 과정에서는 기능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문법, 특히 형태 통사론 쪽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1994년에 “Grammatical relation changing constructions in Korean: a functional-typological study”으로 학위 논문을 쓰면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Korean Grammatical Constructions: Their Form & Meaning》(한국어 문법 구조: 형태와 의미)[새프린(Saffron) 출판사]을 발표하고, 2011년에 《한국어 구문 유형론》(태학사)을 출판하면서 한국어 구문 연구에 대한 두 가지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루시언 브라운 교수와 함께 《Th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한국어학 입문서)라는 책을 편집·출간해서 한국 언어학의 현황을 언어학계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식적인 문법보다는 기능 유형적인 관점의 형태 통사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이유는 기능 유형론적 관점의 문법 연구가 인간의 인지 구조를 밝히는 데 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형식 문법에서의 기술은 ‘왜’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설명된 현상에 대한 형식화 내지는 도식화라고 여겼던 것이죠. 저는 아직 학문 연구에 어떤 철학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한데, 문법 현상을 발견하고 기술할 때 철저하게 (언어) 자료에 바탕을 두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왜곡하거나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변형시키지 말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기술하자는 입장이지요. 그리고 한국어 자료와 문법 현상을 설명할 때 범언어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체득한 통찰력이 참신하고 의미 있는 분석과 해석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의 지향점이 있다면, 저는 철저하게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중시하고 끈기 있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격려해 주는 유형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무서워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웃음). 교사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인내와 칭찬,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은 그 밖에 현재 진행 중인 연구나 계획하시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재훈 우선 학술 대회 관련해서는 내년 8월에 프라하에서 국제고려학회 학술 대회를 준비 중이고, 국제한국언어학회(ICKL,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회장으로서 2019년 7월 호주 멜버른의 모내시대학에서 국제한국언어학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어 참조 문법 교재로 2011년에 라우틀리지 출판사에서 출간한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를 더 깊고 다듬어서 내년에 개정 증보판을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한국어 교재들도 출판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개정 증보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2016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세계화 랩(LAB: 심화형 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Varieties of Korean: Global, Local, and Individual>(한국어의 변이: 세계 변이, 지역 변이, 개인 변이) 프로젝트인데, 이 연구는 한반도 내의 방언뿐만 아니라 제주 말, 이산(Diaspora)과 관련된 한반도 이외 지역의 한국어의 다양성, 즉,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한국어, 중국 연변 지역 동포들의 한국어, 재일 조선인의

언어 특성은 물론 사회적 변이들도 포함하여 2021년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영국 대학에 정년은 없어졌지만, 이제부터는 그간의 연구를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육은 학기당 일주일에 보통 6시간 정도의 강의를 맡고 있는데, 초급 한국어 2시간, 한국어의 역사와 구조 2시간, 석사 과정의 한국어학 수업 2시간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역사와 구조 수업은 학부 4학년과 석사가 같이 공부합니다. 현재 한국학 전공에는 학부 신입생이 매년 40명 정도 입학합니다. 학생들은 전체 4년 과정 중 2학년이 되면 한국의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로 1년씩 한국어 집중 연수를 갑니다. 학생들은 3학년 때 학교로 돌아오고 4학년을 마치고 졸업할 때는 25~30명이 졸업하게 됩니다. 그중에 2~3명이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석사 과정은 10명 정도인데, 다른 대학교 졸업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박사 과정은 15명 정도 되는데, 현재 한국어(교육)학 4명, 한국 역사 6명, 한국 문학 4명, 한국 사회/문화 전공이 1명입니다. 한국학과 이외에도 소아스 정치학과, 경제학과, 미술사학과, 음악학과 등에서 한국 관련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족히 열 명은 넘습니다.

이동은 끝으로 평소애 꼭 묻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학들이 선생님을 어떤 언어학자, 한국어학자, 한국어 교육자로 기억해 주길 바라시는지요.

연재훈 후학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질문은 현재로서는 가당치 않고 20년 후쯤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후학들을 언급하기에는 이루어 놓은 업적도 없고 나이도 너무 젊지요. 학부 때는 언어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무슨 큰 일이나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우리 실생활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